

신앙고백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3장 다함께

1.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없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하시네
2. 도우시는 하나님에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원 인도하시네

기도 말은 이

(기도순서는 자녀, 또는 가정의 연소자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저희는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깃을 파고들 듯 주님의 품을 찾습니다. 허물 많고 나약한 죄인들이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로 저희를 품어주소서.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파숫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걸음을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문은 인도자가 읽거나,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말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13대 왕이면서 유대의 3대 선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침공에 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겁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를 반박하거나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펼쳐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를 맞아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산헤립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왕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었는데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앗수르가 수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격파했는데 하나님인들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유대 백성들은 왕과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은 환난의 날이요,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왕하19:3). 저들을 막아낼 힘이 없던 히스기야는 모욕과 수치의 편지를 받고도 그들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펼쳐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16절) 하면서 탄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에벰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기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 왜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그의 전후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 없었다' (왕하 18:5)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합이란 하나님과 결합되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실시하여, 산 당과 우상을 없애고 모세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했던 놋 뱀을 부시고 느후스단(놋조각)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경배의 대상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것처럼 믿을 좋은 그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었고 동시에 이런 시련을 통해 유다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위기는 각성을 낳고 각성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국가 재난 수준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통해 교회는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연합해서 일어서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매 주일 평안하게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어 앗수르 군대 185,000을 몰살시켰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산헤립은 자기 땅 니스웨로 도망했다가 자기가 섬기는 니스룩의 신전에서 자기의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앗수르는 점점 국력이 쇠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앗수르가 하나님의 일적에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리요,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지만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시27:1~3)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분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바바람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길을 여십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봉 헌 다 합 계
 봉 헌 기 도 가 족 중
 (헌금은 추후 주일예배 참석 시 또는 교회별 안내에 따라 봉헌하시면 됩니다.)
 찬 송 364장 다 합 계

1.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애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알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2.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향 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3.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아파졌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4.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파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자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주 기 도 문 다 합 계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1인 또는 여럿이 드리는

가정 예배문

 한마음교회